

# 성수기 불구 경기 '한산' 여전

일년중 가장 성수기라 할 수 있는 요즘이건만 경동약령시장의 한산한 경기는 여전하다. 날씨가 완연한 봄기운을 회복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다소 빈번해 졌을 뿐 실제 한약시장경기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눈치다.

전국 한약 유통의 60~70%를 차지한다는 서울 경동약령시장 경기가 이쯤이니 몇일마다 한번씩 5일장 형식으로 열리는 지방의 한약시장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한약시장 경기가 여전히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약재 시세는 지난 연말부터 전반적으로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까지 겹친 약용작물 생산량 감소로 물동량이 부족한 때문이다.

지난해 약용작물 총생산량은 약 3만여 톤으로 97년 생산량 약 4만여톤 보다 약

'98, '99 주요약재 시세비교 (600g 기준)

품 목	98년 3월말	99년 3월말
구기자	9,500	17,000
당귀	2,700	4,800
맥문동	거심 11,000	거심 14,000
	막막 7,800	막막 12,500
산수유	6,000	25,000
천궁	토 4,500	토 8,000
	일 2,800	일 6,800
천마	12,000	18,000
향부자	1,600	2,200
황기	4,000	9,000

25%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황기, 당귀, 천궁, 주요품목을 비롯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등 열매류 약재에 이르기 까지 작년 이맘때 시세보다 평균 40~50%는 상승했거나 많게는 4배까지 폭등했다.

작년 이맘때 근당(6백g 기준)6천원 선이던 산수유의 경우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도매시세는 2만5천원 선. 물량 구하

기가 어렵다. '보파리 물건'이 대량 들어오고 얼마 전엔 수급 조절품목으로 50톤 정도가 반입됐으나 "포도 안 난다"는 시장 상인들의 말이다. 수입 산수유도 근당 1만 2천원 선으로 높은 값에 거래되고 있다.

구기자는 수입과 국산의 가격차가 크지 않아 "영양가 없다"며 수입업자들이 손대지 않고 있는 품목.

오미자는 외견상 토자 보다 더 좋아 보이는 값싼 수입산이 식품으로 대량 반입돼 시중유통돼고 있어 토자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량부족에도 불구하고 국산 오미자 시세는 근당 1만 5천원 선으로 큰 오름세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수입천마 반입 감소 영향으로 국산 천마 시세도 근당 1만8천원 선으로 여전히 상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백출은 최근 북한산 2백10톤이 반입된데다 식품

## 이달의 관심품목

### 향부자

근당 2천2백원 선으로 회복세 '더 오를것' 전망



대추씨 만큼한 크기에 보송보송 털이나 있는 모양의 향부자는 부인 냉증에 좋다 하여 예로부터 한방 보약재로 두루 쓰여 왔으며 요즘 들어 제약사들에서 쌍화탕 재료로 또는 향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주산지인 경북 고령군 다산에서는 향부자에 우슬, 익모초, 소엽,골담초, 금은화 등을 넣고 같이 달인 물로 식혜를 만들어 먹으면 신경통에 좋다 하여, 봄이되면 집집마다 향부자로 약식혜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지난 93년 이후 과잉생

산으로 근당(6백g 기준) 시세가 1천원대 까지 폭락했던 향부자가 최근 들어 회복세, 시세폭락으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근당(6백g 기준)도매 시세도 지난 연말시세 2천원 보다 다소 오른 2천2백원 선. 향부자 시세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면 값이 조금더 오르기를 기다려 볼만도.

으로 반입된 중국산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어 근당 3천 5백원선이던 수입 백출 시세가 3월말 현재 근당 2천

7,8백원 선으로 하락. 조만간 쿼터폼으로 3백톤의 중국산이 더 반입될 예정이다.

**작약** 국산약재 시세가 전반적으로 눈에 띠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작약은 생산량 감소 추세에 비해 시세변동 폭이 더딘 편. 3월말 현재 경동 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도매 시세는 지난 연말 기준 4천 원선(의성산)에서 약 5백원 폭으로 오른 4천5백원 선이다. 작약은 지난 3~4년 전부터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의 경우 예년 수확량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산지인의 전언. 당년생이 아니라 최소한 3~4년은 돼야 수확이 가능한 작약은 이미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한 만큼 올해도 수확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눈치 빠른 일부 장사꾼들은 이처럼 작약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것임을 예상 미리 15만근 정도를 잡아두고 있다는 소문. 햇것이 출하될 시기인 8.9월 이전까지는 작약시세가 큰 폭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황기** 지난해 월평균 시세가 근당(6백g 기준)4천4백원 대를 형성하던 1년근 소황기 시세가 지난 연말 6천원대로 진입, 꾸준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

## 국내산 3,4년근 정도 굵기의 수입 황기 식품으로 반입돼와 한약재로 변칙 유통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통자로 9천원, 절자로 9천5백원 선에 도매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은 탓에 황기 시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상보합세 보일 전망이다. 이처럼 국산 황기 값이 오름세를 타자 금새 중국산 황기가 식품으로 반입돼 시장에서 변칙 유통되고 있다는 시장 상인들의 귀뜸. 국내산 3.4년근 정도 굵기의 중황기가 국산 시세의 절반값에 유통되고 있다고. 국산 황기 3년근은 근당 1만 8천원, 5년근 이상 대황기는 3만 2천원선으로 약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산수유** 물량부족으로 지난해 월평균 시세(근당 8천9백원)보다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지난해 여름 수해 영향으로 열매수확이 부진했던 탓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기 시작한 산수유 시세가 이제는 물량이 귀해 부르는게 값이 돼버렸다.3월말 현재 경동 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도매시세는 2만원에서 2만5천원선. 국산시세 폭등으로 중국산 산수유가 식품으로 반입돼 시중 유통되고 있긴 하지만 산수유 홍작은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수입산도 근당 1만2천원 선으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국산 산수유 폭등세는 당분간 지속될 듯.

**맥문동** 밀양산 햇것이 소량 출하되고 있다. 아직 때가 일러선지 알이 그리 굵게 들지는 않은 편이라고. 맥문동 역시 지난해 생산량 급감으로 상반기에 근당(6백g 기준)1만8천원(거심)선 까지 거래됐으나 지난 연말부터 1만 4천원 선으로 보합세다. 오늘 5월 초순경부터 청양산 햇것이 본격 출하돼 나올 예정이어서 수확시기를 앞두고 맥문동 시세는 다소 내림세 경향을 띠는 것이라 분석이다.

**구기자** 열매류 홍작으로 산수유와 함

께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품목.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만7천원선. 청양 산지에서 1만6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 시세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는 시장상인들의 푸념. 구기자도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천마**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만8천원 선으로 지난 연말 시세인 1만7천원 시세보다 1천원 폭으로 오름세. 지금 산지에서는 자연산 천마는 물론이고 재배산도 물량구하기가 어렵다. 중국산 천마 가격 상승으로 국산과의 시세 차액이 없는 점을 계산한 수입업자들이 천마 수입을 꺼리고 있고 국내 생산량도 많지 않아 물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천마는 종균업자들에 의해 농가에 대량 보급되긴 했으나 불량종균의 범람으로 이로 인한 농가피해도

심각했던 품목. 재배법이 그만큼 까다롭다.

**당귀** 국산약재의 전반적 오름세에도 별 변화없이 보합세를 이루고 있던 토당귀 시세가 최근 들어 소폭 오름세.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도매시세는 토자가 4천8백원(통), 5천5백원(절)선이며 일당귀는 통으로 4천원 선이다. 지난해 생산량이 예년비 급감했음에도 물량을 찾는 사람보다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향후 당귀시세는 다소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천궁**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경동약령시장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토천궁이 8천원(절), 일천궁이 6천8백원(절)선으로 오름세다. 지난 97년 과잉생산으로 근당 시세가 2천원 선까지 폭락했던 탓에 지난해 일천궁 생산량도 급감. 그 영향으로 일천궁 시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소 상승세 보일 것이라 분석이다.

<문정희>